

I. 장성군 연혁

I. 장성군 연혁

1. 선사시대

장성지방의 선사문화 가운데 주목할 것은 지석묘의 분포이다. 지석묘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혈연집단들의 무덤으로 장성지방에서 지역별로 집단들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와 그 맥을 같이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마한시대

장성지역의 마한사회는 6세기 초경까지 마한의 전통을 유지하여 나왔다고 할 수 있으며 6세기 중엽 이후부터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장성지역은 마한시대 동안 외곽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백제시대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백제시대

6세기 전반 무렵 방-군-성(현)체제 하에서 현재의 장성지역에는 3개의 현(縣)이 있었다. 옛 장성의 고시이현(古尸伊縣)과 진원의 구사진혜현(舊斯珍兮縣) 및 삼계의 소비혜현(所非兮縣)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백제시기에 축조되었음이 공인된 최초의 고분으로 1986년 발굴된 영천리 고분이 있다.

4. 통일신라와 후백제시대

경덕왕 16년(757) 고시이현은 갑성군(岬城郡), 구사진혜현은 진원현(珍原縣), 소비혜현은 삼계현(森溪縣)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9주 제하에서 장성지역은 무진주에 속하였는데 당시 고시이현, 즉 원래의 장성은 사반주(沙泮州)의 치소였다. 그리고 삼계는 이 사반주에 속해 있었으며,

진원은 분차주(分嵯州)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무진주 치하에서 장성지역에는 갑성군, 즉 본래의 장성군과 진원현, 삼계현이 있었는데 갑성군이 진원현과 삼계현을 영현(領縣)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진성여왕 6년(892)부터 45년간 후백제 세력에 속하였다.

5. 고려시대

태조 19년(936) 고려의 영역이 되었다. 태조 23년(940)(또는 성종 11년) 갑성군은 장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종 9년(1018) 삼계현과 장성군은 영광군에 진원현은 나주목에 예속되었다. 이무렵 갑성군의 소재지였던 장성을 유탕천 이남과 황룡면 남부일대에 마량부곡(馬良部曲)이 설치되었으며, 후에 진원현에 편입되었다.

명종2년(1172) 장성현과 진원현이 영광과 나주에서 분리 감무가 파견되었다.

6.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 장성과 진원이 현감고을이 되었으며, 선조 33년(1600) 두 현이 합병되어 치소를 영천리로 옮겼다가 효종 6년(1655) 도호부로 승격되어 다시 성산으로 옮겼다.

군 현의 하부구조로는 면, 리가 있다. 장성현의 면은 읍동, 읍서, 내동, 외동, 남일, 남이, 남삼, 서일, 서이, 서삼, 북일, 북이, 북상, 북하, 역면 등 영조 때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15개면으로 나타나 있다.

고종 32년(1895. 5. 26)칙령 제98호에 의하여 부(府)가 군으로 바뀌었다.

1906. 9. 24. 창평군의 갑향면이 장성군에 편입되었다.

7. 일제시대

1914. 4. 1. 영광군의 삼북·내동·현내면이 삼계면으로, 삼남·외서면이 삼서면으로 외동면과 함평군 대화면이 동화면으로 통합되어 장성군에 편입되고,

갑향면은 담양으로 할양하였다. 이때 읍동·읍서는 장성면, 외동·내동은 진원면, 남일·남이는 남면, 서일·서이·남삼은 황룡면으로 통폐합되고 역면은 북상면으로 개칭되어 13면 123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15. 7. 1. 고창군 성송면 생촌리가 본 군에 편입되고, 1921년 군청을 영천리로 옮겼으며 1930년 북상면이 장성면에, 북일면 공평이 서삼면에 편입되었다.

1943. 10. 1. 장성면이 장성읍으로 승격하고, 동년 10. 3. 사무소를 성산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8. 대한민국

1950. 7. 23. 부터 동년 10. 22. 까지 공산치하에 있었다.

1975. 10. 1. 장성댐 수몰로 대통령령 제7817호(75. 9. 23 공포)에 의하여 북상면이 폐지되고 용곡리는 장성읍에,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에, 신성·쌍용·동현·덕재리는 북하면에 편입되어 1읍 10면이 되었다.

1983. 2. 15. 남면 삼태리 지촌이 광주시에 편입되었다.